

2011.03.07 미래정책연구실

□ 곡물 선물가격 변동 및 USDA Outlook 발표

1. Financial Times(2011.02.25) 주요 내용

- 최근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농산물 시장의 선물가격이 한때 하락세를 보였으나, 금세 반등하여 상승세를 이어감.
 - 옥수수는 장중 한때 최근 2년 6개월 내 최고점까지 상승, 같은 기간 밀과 면화 또한 각각 4.5% 이상 급등함.
- <선물시장 동향> 3월 인도분 밀 가격은 지난주 초 3일간 15% 하락하였으나, 다시 4.8% 반등하여 부셸당 7.8325달러로 마감함.
 - 3월 인도분 옥수수 가격 또한 3.6% 반등하여 부셸당 7.105달러로 마감, 장중 한때 2008년 6월의 최고점인 7.65달러에 거의 근접함.
 - 3월 인도분 콩 가격은 3.3% 오른 부셸당 13.615달러를 기록함.
- 라보뱅크의 농업연구 책임자인 Luke Chandler는 근본적인 거시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곡물과 유지작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여 선물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언급함.
- 한편, USDA는 25일 개최된 「Agricultural Outlook Forum」에서 2011/12 곡물년도에 대한 전망을 발표함.
 - 옥수수와 콩의 풍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, 향후 12-18개월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
 - 또한 미국 내 주요 곡물 및 유지작물은 전반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.
- <수요 대비 재고율> 2011/12년 옥수수의 수요 대비 재고율은 6.4%로, 2010/11년에 비해 1.4% 증가하였으나, 여전히 2008/09~ 2009/10년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임.

- USDA는 옥수수 재고량 부족으로 산지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힘.
- 한편, 2011/12년의 콩의 수요 대비 재고율은 4.8%로 전망되는데, 이는 2010/11의 4.2%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임.
- USDA는 전년대비 재고율이 약간 증가했으나,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산지가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.
- Barclays Capital의 Sudacshina Unnikrichnan은 미국의 생산량이 증가 하더라도, 재고 부족이 지속된다면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으며,
- 올해의 작황에는 기상 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.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